

2014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는 2014. 6. 26일(목)부터 6. 27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38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교협 김준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기반 위축, 교육의 질 후퇴, 빚장 처진 교육규제 등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진단했고, “학령인구 감소는 한국 대학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구조개혁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적인 구조개혁은 우리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비전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은 일과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대학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의 현안 및 쟁점 과제 발표에서 노석균 총장(영남대)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남궁근 총장(서울과학기술대)은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둘째날에는 ‘정부 및 대학간 협력을 통한 대학 발전’을 주제로 홍승용 총장(덕성여대)이 ‘대학간 창조적 협업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 설명 시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 교육부 나승일 차관과 대학 현안에 대하여 총장들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교협 제197차 이사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6월 18일(수) 서울 중구 코리안호텔에서 제197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계획, 역대회장 고문단 운영 관련 사항, ‘대학 자율화’ 추진 관련 규제완화 의견조사 결과, 대학발전총장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사항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2개 기관의 대교협 회원가입 여부, 2014년 추경예산, 예산회계규정 개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학발전총장위원회(제2차, 제3차) 회의

대교협 대학발전총장위원회는 대학재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대학간 자원 공유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제2차 회의(5.30)와 제3차 회의(6.13)를 연이어 개최하고,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와 대안, 외국의 대학평가, 대학재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학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연속 회의를 통하여 구조개혁의 비전과 가치,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방법, 구조개혁지원법안의 내용 개선, 대학의 퇴출구조 마련, 등록금 및 장학금 개선 대책, 국립대 기성회비 대안 모색, 창조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간 자원 공유와 개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학발전총장위원회는 앞으로 대학 발전 중장기 과제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국회, 정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 협의와 설명 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31 교육개혁 20년 좌담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6월 10일(화) 대교협 회의실에서 한국대학신문과 공동으로 ‘5.31 교육개혁 20년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김신복 가천학원 이사장(전 교육부 차관), 이종재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최종옥 경기대 교육대학원장(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5.31 교육개혁 20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다.

예멘 한국선진교육시스템 사례조사단 방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월 29일(목) 대교협 22층 회의실에서 예멘 한국선진교육시스템 조사단과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 및 선진 고등교육시스템 등 고등교육 협력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예멘은 UN 지정 최빈개도국으로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민주정부 수립 및 경제재건을 위해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할 선진교육시스템으로 주목하고 있다.



예멘 Al-Abidi 교육기획최고위원회 사무총장, Al-Mottahar 고등교육과학부 차관, Al-Hidabi 국립 사나대학교 교수, Al-Huthi 교육연구개발센터 부회장, Al-Hakimi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 Al-Fakhri 기획재정부 위원회운영국장 등 한국선진교육시스템 조사단은 한국 고등교육 분야의 다양한 개혁 정책 및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대학 입학정책, 대학평가, 대학정보공시, 국제교류, 대교협의 역할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대학총장선출, 대학입학정원관리, 국제화프로그램(한중일 캠퍼스아시아, 대학글로벌현장학습 등), 대학정보공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014년 선취업 후진학 관련 평생교육 사업설명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24일(목)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2014년 선취업 후진학 관련 평생교육 사업(후진학 거점대학 지정육성 사업 및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취업 후진학 관련 평생교육 사업 공고에 따른 기본(시행)계획 및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였으며, 사업 운영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15학년도 대입정보 설명회 및 대입상담 실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4월19일(토)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및 이삼봉홀에서 2015학년도 대입정보 설명회 및 대입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험생, 학부모 및 50개 대학 관계자 등 2,500여명이 참여하였다.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은 대입상담센터를 안내하며 “시도교육청, 대학별 설명회 부재기간에 공교육 중심의 설명회와 상담을 제공하는 첫 자리이며, 앞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공교육 중심의 대입정보를 고교 현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대입상담전화(1600-1615)와 온라인 상담을 실시간으로 시행하고,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 박람회, 각종 대입 정보 자료집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대학 담당자 워크숍

대교협 한국대학평가는 4월 8일(화)~9(수)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 대학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한 12개교에서 70여 명의 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3년 1차 인증대학인 삼육대와 2013년 2차 인증대학인 서울장신대의 자체 진단평가보고서 작성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기관평가인증에 필요한 실무자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일에 걸쳐 6개 영역별 총 54개 준거에 대한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각 준거별로 보고서 주요내용, 근거 자료, 산출식 및 기준값, 유의사항 및 관련정책, Q&A 등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담당자의 평가준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평가원은 대학에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대학별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대학별로 주어진 시간 동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과 더불어 대학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